

# 단순동사와 사슬동사의 상적 분류와 의미\*

이 영 현  
(조선대학교)

Lee, Young-Hern. 2005. Aspectual Classification of the Single and Serial Verbs and their Meanings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3(3), 17-3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the simple and serial verbs into four aspectual subcategories and to describe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verbs according to Vendler (1976) and Kearns (2000). We argue that if a verb takes non-finite NP as the internal argument then it works as activity verbs and if a verb takes the finite quantified NP as the argument then it can be classified as accomplishment verbs. And if  $V_1$  is a consumption/decremental verb in the serial verb construction then  $V_2$  is classified into an activity verb, and  $V_1$  is a creative/incremental verb then the serial verb construction can be classified as an accomplishment verb. We also can classify the verbs into the activity and accomplishment verbs with respect to the adverb IMI (*already*) and entailment. Finally we formalize the meanings of the activity and accomplishment verbs by the revised subatomic semantic theory.

주제어(Key Words): aspectual classes, activity verbs, accomplishment verbs, serial verbs

## 1. 서론

동사는 일반적으로 [행위나 상태 + 시간] + [상]의 의미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상(aspect)을 나타내는 요소와 의미는 언어에 따라 대단히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영어의 상은 문법적 상과 어휘적 상, 그리고 문맥에 따른 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법적 상은 상조동사<sup>1)</sup>가 나타내는 이른바 진행상과 완료상을 들 수 있으며, 어휘적 상은 동사나 부사어가 갖

---

\* 이 논문은 2003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조동사(Auxiliary)는 양상(modal)조동사, 상(aspectual)조동사, 수동(passive) 조동사, 그리고 무표(dummy: 예컨대 do)조동사로 구분하기도 하며, 상조동사는 be + V-ing나 have + V-pp의 be나 have를 말한다.

는 의미적 특성에 의하여 드러나는 경우이고, 문맥에 따른 상은 내부논항의 특성에 의하여 상적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특히 동사가 나타내는 상적 의미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이후로는 국어로 약칭한다)의 경우 대단히 복잡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국어 동사의 상적 현상이 영어의 경우와 상이한 것은 국어에는 대단히 다양한 사슬동사(serial verbs)<sup>2)</sup>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에서 상을 나타내는 요소는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와 구분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어의 사슬동사 가운데는 상적 사슬동사로 간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양상 사슬동사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과 양상(modal)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국어의 상에 대한 논의는 상 표시 요소와 시제 표시 요소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사의 상적 의미에 따라 동사를 상적 하위범주를 설정하고 이들 하위 범주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본 고에서는 국어의 단순동사와 사슬동사를 중심으로 이들 동사를 상적 특성에 따라 하위 범주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어 상 기술의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어의 동사의 상적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상 기술의 문제점

종래의 국어의 상에 관한 논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단순동사와 함께 쓰이는 형태소 {았}이나 {0}이 완료상이나 미완료료를 나타낸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서정수(1976), 남기심(1978), 최현배(1984) 등에서는 {았}은 완료를 나타내고, {0}은 미완료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둘째는 사슬동사 가운데  $V_2$ 가 상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남기심/고영근(1985), 옥태권(1988) 등에서는 ~게 하다, ~고 있다, ~려 한다 등이 상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 경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 이외의 요소가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써, 박선자(1983)에서는 동작의 모습과 관련된 부사들이 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렇듯 상을 나타내는 요소와 의미에 대한 논의가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몇 가지 문제점이 노정된다.

첫째, 형태도 {았}이나 {0}이 상을 나타내는 요소인지 아니면 시제 표시

2) 사슬동사는  $[V_1 + \text{어/고} + V_2]$ 구조를 갖는 경우이며 의미상으로는 두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가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는 동사를 말한다.

인지에 대한 명백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1) a. 철수는 밥을 먹었다.
- b. 비행기가 떴다.

(1)은 **먹다**나 **뜨다**가 형태소 {았}과 함께 쓰이는 경우이다. 형태소 {았}에 대한 논의 가운데 김차균(1980)에서는 시제표시로 간주하였고, 남기심(1978)에서는 완료를 나타내는 상 표시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반해서 최현배(1984), 서정수(1976)에서는 시제와 상을 동시에 나타내는 이른바 시상(tense-aspect)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듯 형태소 {았}이 (1a)의 경우는 시제표시 요소이고 (1b)의 경우는 상표시 요소라는 것은 이들 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특성이 밝혀지면 {았}의 통사(형태)적 범주에 대한 합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물동사 가운데  $V_2$ 로 쓰이는 **버리다**는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본래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2) a. 철수가 밥을 먹어 버렸다.
- b. 철수가 그림을 그려 버렸다.

(2)의 두 문장에서  $V_2$ 로 쓰이고 있는 **버렸다**는 동일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신현숙(1986)에서는 (2a)의 **버렸다**는 동사 본래적 의미 즉 “없앰”을 나타내는 본동사로 간주한데 반해서 옥태권(1988)에서는 (2b)의 **버렸다**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상조동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경험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사물동사로서 **버리다**와  $V_1$ 과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물동사로 쓰이는 **버리다**와  $V_1$ 과의 의미적 상관관계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조동사와 양상 조동사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상기능과 양상기능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 (3) a. 철수가 죽으려 한다.
- b. 처마 끝의 물방울이 떨어지려 한다.

옥태권(1988)에서는 (3a)의 ~려 하다는 주어의 의도를 나타내는 데 반해서 (3b)의 ~려 하다는 물방울이 의도를 가질 수 없음에도 동작이 일어날 기미를 보이는 표현임으로 상의 범주로 간주하고 이를 예기상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게 되었다, ~고자 한다 따위는 예정상 또는 전망상을 나타내는 상적 표시라는 것이다. 그러나 ~려 하다는 같은 서술어는 물론이고 ~게 되었다, ~고자 한다 등은 단순한 사건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아니라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서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려 한다, ~고자 한다 등이 상을 나타내는 요소인지 아니면 양상을 나타내는 요소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국어의 상에 대한 논의의 문제는 단순동사를 포함하여 사슬동사에 대한 상적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국어의 상적 현상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상적 분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상적 분류

#### 3.1. 상의 하위범주

Vendler(1967)에서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상적 특성에 따라 상태(state)동사, 행위(activities)동사, 완수(accomplishment)동사, 성취(achievement)동사로 하위분류하고 있다.

(4) state	activities	accomplishments	achievements
know	run	paint a picture	recognize
believe	walk	make a chair	spot
have	swim	deliver a sermon	find
desire	<u>push a cart</u>	draw a circle	lose
love	drive a car	<u>push a cart</u>	reach
		recover from illness	die

이와 같이 동사를 상적 특성에 따라 4가지의 하위범주로 분류한 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성(eventuality)<sup>3)</sup>은 사건의 내적 구조를 나타내는 상적

---

3) 사건성이라는 용어는 Emmon Bach(1986)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사건(event)과

특성이 서로 상이하다는 데 근거한 것이다. 즉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하나의 사건(event)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건의 시작이나 과정 또는 끝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사건은 완료되거나 완료되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다.

이렇듯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Kearns(2000)는 동사의 상적 자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5)

	Change	Duration	Bound
state	-	+	-
Achievment	+	-	+
Activity/process	+	+	-
Accomplishment	+	+	+

(5)의 분류 기준에 근거할 때, 상태동사(예컨대 know 등)는 지속기간(duration)만 있을 뿐 변화와 경계점을 경계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완수동사(예컨대 paint a picture)는 사건이 발생의 최초시점(앞으로는 발단(onset)으로 칭한다)에서부터 사건이 지속되는 기간을 거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경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행위동사(예컨대 walk 등)는 사건이 발단되어 지속기간은 있지만, 경계점을 갖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걷다의 의미는 한 발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순간 다른 발이 올라가는 변화를 겪지만, 이 두 개의 사건이 지속되는 경우이지만, 경계점을 갖지 않는 경우이다. 그리고 성취동사(예컨대 recognize)는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식하는 상태로 변화가 생기는 하지만, 인식하는 데 있어서 지속기간 필요한 것은 아니며 경계점을 갖지 않는다.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성을 상의 입장에서 분류한다면, 상태동사와 성취동사에 대한 구분은 변화, 지속기간, 경계점에서 서로 상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분이 용이하다. 그러나 행위동사와 완수동사는 동일한 자질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자질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 두 동사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국어 상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행위동사와 완수동사에 대한 분류에 초점이 모아진다.

---

상태(state)를 나타내는 말이다.

### 3.2. 행위동사와 완수동사

국어의 상을 나타내는 요소는 형태소 {았}이나 사슬동사의  $V_2$  등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형태소 {았}은 시제표시로 간주하기도 하고 상 표시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 (6) a. 철수가 밥을 먹었다.  
b. 비행기가 떴다.

(6a)의 **먹었다**는 물론이고 **떴다**에는 동일한 형태도 {았}이 쓰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a)의 **먹었다**의 {았}은 과거시제 표시로 간주하는데(김차균:1980) 반해서, (6b)의 **떴다**의 {았}은 완료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최현배: 1984). 그리고 이 두 가지 견해를 수용하여 {았}을 시-상표시로 간주한 경우도 있다(서정수:1976).

이렇듯 {았}과 함께 쓰이는 동사의 의미가 과거시제를 나타낸다면 이들 동사는 상적 의미를 갖지 않음을 의미하고, {았}과 함께 쓰이는 동사의 의미가 완료상을 나타낸다면 이들 동사는 상동사임을 말해준다. 즉 {았}이 과거시제 표시라는 주장은 이들 동사는 행위동사임을 의미하고, {았}이 완료상의 표시라는 주장은 이들 동사는 상태동사나, 행위동사가 아니라 완수동사이거나 성취동사임을 말해준다. 우선 단순동사가 갖는 상적 특성을 살펴보자.

첫째, 동일한 동사라 할지라도 이들 동사의 내부부항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동사가 나타내는 상적 의미는 서로 상이하다.

- (7) a. 철수가 밥을 먹었다.  
b. 철수는 밥을 먹었으나, 다 먹지는 못했다.  
c. 철수는 밥을 먹었으나, 아직도 밥이 남아 있다.

우선 (7a)의 **먹었다**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면 철수가 밥을 먹는 행위가 완료되었음으로 (7a)나 (7b)와 같은 문장은 비문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7b)와 (7c)의 두 문장이 문법적인 것은 화역(domain)에서 말하고 있는 밥은 비한정적 수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7a)는 밥의 양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철수가 밥을 먹었다는 사실 즉 먹는 행위가 과거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을 뿐, 밥의 양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밥을 먹는 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과거 사건에 대한 부분적 부정을 덧붙일 수 있다. 즉 **먹었다**에 대한 일부 부정 즉 먹지 못했다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수행할 행위가 있음을 부가할 수 있다. 이렇듯 (7a)의 의미는 (7a)와 (7b)의 문법성으로 보아 완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를 말하는 것임으로 이는 행위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동사라 할지라도 내부논항이 한정적 수량 의미를 갖는다면 행위동사로 간주할 수 없다.

- (8) a. 철수가 밥 한 그릇을 먹었다.
- b. \*철수는 밥 한 수저를 먹었으나, 다 먹지는 못했다.
- c. \*철수는 밥 한 수저를 먹었으나, 아직도 한 수저가 남아있다.

(8b)가 비문법적인 것은 밥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수가 한정된양의 밥(예컨대 한 그릇의 밥)을 먹었다면 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8b)의 선행문과 후행문 사이에는 모순이 생긴다. 즉 (8a)에서는 사건이 완료된 상황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된 행위에 대한 부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7a)의 **밥을 먹었다**는 밥을 먹은 행위를 언급하고 있으나, (8a)의 **밥 한 그릇을 먹었다**는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7a)의 {았}은 과거시제 표시이고, (8a)의 {았}은 완료상을 나타내는 요소임으로 [한정 수량명사구 + 동사]구조를 갖는 경우의 동사는 완수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정 수량명사구를 내부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를 완수동사로 간주하였으나, 명시적 한정 명사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료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9) a. 비행기가 떴다.
- b. 적기가 떴다.

(9)의 두 표현은 [비한정 명사구 + 동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a)의 **떴다**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9b)의 **떴다**는 과거시를 나타낸다. 이렇듯 (9)의 **떴다**가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이들 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9a)의 **비행기**는 한정적 수량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임으로 **떴다**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행위동사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a)에 대한 우리의 경험적 판단에 따르면 비행기가 뜨는 행위의 과거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떠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즉 (9a)의 명사 **비행기**는 명시적 한정 수량어와 함께 쓰이지 않지만, 한정적 수량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명사 **비행기**가 갖는 희귀성 때문이다. 즉 희귀성을 갖는 명사구에 한정적 수량어를 부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는 한정적 수량의미가 내포된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한정적 수량의미를 갖지 않는 (9b)의 경우에는 선행문에 대한 부가적 부정이 가능하다.

- (10) a. 적기가 떴으나, 다 뜨지는 않았다.  
 b. 적기가 떴으나, 아직도 뜨지 않은 적기가 있다.

(10)의 두 문장이 문법적인 것은 (10)의 **적기**는 비한정 수량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명시적 한정 수량어를 논항으로 취하거나 의미적으로 한정적 수량의미를 갖는 표현을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비한정적 수량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는 행위동사로 간주할 수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았}이 시제의 의미를 갖는 경우 이들 동사는 행위동사로 분류할 수 있고, {았}이 완료상을 나타내는 경우 이들 동사는 완수동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밥을 먹었다**는 행위동사로 간주할 수 있고, **비행기가 떴다**는 완수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정 수량어와 비한정 수량어와 관련된 행위성과 완료성은 의 차이는 종지성(telicity)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 (11) a. John ate apples. - 비종지성(atelic)  
 b. John ate an apple - 종지성(telic)  
 (12) a. 철수가 밥을 먹었다 - 비종지성(atelic)  
 b. 철수는 밥 한 그릇을 먹었다. -종지성(telic)

(11a)와 같은 문장은 비종지(atelic)로 해석되는 데 반해서 (11b)와 같은 문장은 종지(telic)로 해석된다(Yoshikawa 2003:540). 즉 비종지성을 나타내는 서술어 *ate apples*가 비종지성을 나타내는 것은 사과를 먹었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먹는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이나 종결점을 갖지 않으며, 다만 먹는 사건이 반복되거나 지속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런데 반해서 (11b)의 경우는 일정 양의 사과를 먹는 행위가 시작되어 먹는 행위는 종결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종지성을 갖는 경우이다. 즉 먹는 행위는 사과를 물어 뜯고, 씹어서 삼키는 변화를 거치는 일련의 사건이 종료되는 경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종지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완수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비한정 수량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들 논항이 상조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완수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 (13) a. 철수는 밥을 먹어 버렸다.  
 b. 철수는 밥을 먹었다.

(13a)의 **버렸다**에 대한 논의는 상조동사로서의 기능과 동사 본래적 의미를 갖는 경우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우선 (13a)의 **버리다**는 동사 본래적 의미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 (14) 철수는 희망을 잃어 버렸다.

신현숙(1986)에서는 (14)의 **버렸다**는 동사 본래적 의미 즉 없앴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14)의 의미는 철수가 희망을 잃음으로써 희망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해서 옥태권(1988)에서는 동일한 **버리다**라 하더라도 본동사로서 해석되는 경우와 상조동사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을 제시하고 **버리다**가 의미적으로 완료<sup>4)</sup>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상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 (15) a. 철수는 희망을 잃어 버렸다.  
 b. 철수는 그림을 그려 버렸다.

(15a)의 **버리다**는 동사 본래적 해석이 가능함으로 조동사가 아니라 본동사로 간주되는데 반해서 (15b)의 **버리다**는 완료적 의미를 나타내는 완결상의 상조동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서술어 **버리다**가 없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완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한

4) 이러한 경우를 [+완결성]이라는 자질로 표시하고 있다.

명시적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즉 (15a)의 **버렸다**는 본동사이고 (15b)의 **버렸다**는 상조동사라는 것이다. (15a)의 **버렸다**와 (15b)의 **버렸다**는 선행하는 요소와 관련된 사슬동사로 간주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슬동사 가운데  $V_1$ 의 의미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V_2$ 인 **버리다**의 의미적 기능이 결정된다. (15a)에서 보는 것처럼 소비(consumption)동사나 감소(decremental)동사가  $V_1$ 로 쓰이는 경우  $V_2$ 인 **버리다**는 없앴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반해서(15b)에서 보는 것처럼 창조(creative)동사나 증가(incremental) 동사가  $V_1$ 으로 쓰이는 경우는  $V_2$ 로 쓰이는 **버리다**는 완료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16) a. 철수는 그림을 지워 버렸다.
- b. 철수는 나무 가지를 잘라 버렸다.
- c. 철수는 파리를 잡아 버렸다.
- d. 철수는 나무를 베어 버렸다.
- e. 철수는 파리를 죽여 버렸다.
- f. 유령이 사라져 버렸다.
- (17) a. 철수는 그림을 그려 버렸다.
- b. 철수는 소나무를 심어 버렸다.
- c. 유령이 나타나 버렸다.
- d. 벽에 그림을 붙여 버렸다.
- e.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 버렸다.

예컨대 (16a)의 경우 그림을 지움으로써 그림의 형태를 없애는 경우를 나타낸다. 따라서 (16)의 **버렸다**에는 없앴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17a)의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없애는 상황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며, 논리적으로도 그림을 그려서 없애버리는 경우는 모순되기 때문에 (17a)의 **버렸다**는 없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 즉 이러한 의미적 차이는 선행동사가 소비동사(또는 감소동사)의 경우에는 없앴의 의미를 나타내며, 선행동사가 창조동사(증가동사)<sup>5)</sup>인 경우에는 완료의 의미

---

5)	소비동사 지우다 치우다 자르다 잡다(죽이다) 줄이다	창조동사 그리다 쓰다 심다 키우다 살리다
----	---	---------------------------------------

를 나타낸다. 따라서 (16)의 **버렸다**는 없앴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반해서 (17)에는 없앴의 의미는 없고 오직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소비동사와 함께 쓰이는 **버리다**가 상을 나타내는 경우, 이들 사슬동사의 논항은 한정적 수량 의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8) a. 철수는 밥을 먹었다.
- b. 철수는 밥을 먹어 버렸다.

(18a)의 동사구 **밥을 먹었다**는 비종지상을 나타내는 행위동사임은 물론이고, **먹었다**의 내부논항은 비한정 수량어이기 때문에 (18a)의 **먹었다**는 행위동사이다. 그러나 (18b)에서 보는 것처럼 비명시적 양화표현이 동사의 논항으로 쓰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먹어 버리다**가 완료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논항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완수동사로 간주된다.

또한 **먹어 버리다**는 완료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에 대하여 일부 부정이나 부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 (19) a. \*철수는 밥을 먹어 버렸으나, 아직 다 먹지는 못했다.
- b. \*철수는 밥을 먹어 버렸으나, 아직도 밥이 남아 있다.

(19)의 비분법성으로 보아 **먹어 버리다**의 경우는 사건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부 부정이나 부가적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국어의 **먹어 버리다**는 논항의 한정적 수량 의미에 관계없이 완수동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6)과 (17)의 예를 통해서 소비동사와 함께 쓰이는 **버리다**는 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사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반해서 창조동사와 함께 쓰이는 **버리다**는 완료의 의미를 갖는 완수동사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8b)와 같이 **먹어 버리다**는 상적 의미는 없고 밥을 먹어 없앴다는 의미적 해석만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b)의 경우 완료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처럼 보인다.

**먹어 버렸다**가 **먹어 없앴다**의 의미와 완료 해석이 가능한 것은 **먹다**와 같은 동사를 소비동사로 간주하느냐 아니면 창조동사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버리다**의 의미가 결정된다. 즉 **버리다**가 상적 의미를 갖느냐 아니면 원래의 의미인 없앴의 의미를 갖느냐는 **먹다**를 창조동사로 간주하느냐 아니면 소비동사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20) a. 철수가 그림을 그렸다
- b. 철수가 밥을 먹었다.

(20a)의 **그림을 그리다**는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대상인 그림이 생겨나기 때문에 확실한 창조동사이다. 이와는 달리 (20b)의 **먹었다**는 주어진 대상을 먹었다면, 그 대상이 원래의 상태에서 감소된 경우이기 때문에 소비동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어인 철수의 입장에서 보면 주어진 대상을 먹기 전의 상태를 기점으로 볼 때, 주어진 기점의 상태보다는 수량이 증가한 경우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증가 또는 창조 동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먹다**와 같은 동사는 먹는 대상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행위자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소비동사로 간주할 수도 있고, 창조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듯 (18b)의 **먹어 버렸다**를 완료동사로 간주하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 창조동사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먹다**를 목적인 주제(theme)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동사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적 의미는 없고, **버리다**의 어휘적 의미만을 갖게되어 (18b)의 의미는 밥을 먹은 결과 지금은 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행위동사와 완수동사의 차이점은 부사어의 수식관계가 다를 수 있다.

- (21) a. ?철수는 밥을 이미 먹었다.
- b. ?철수는 밥을 이미 먹었었다.
- c. 철수는 밥을 이미 먹어 버렸다.

**이미**와 같은 부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건과 관련된 시간부사이다. 따라서 **이미**와 같은 부사는 성취동사나 완수동사와 함께 쓰일 수 있으나, 행위동사와는 함께 쓰일 수 없다. 따라서 과거시를 나타내는 행위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이미가 갖는 완료적 의미와 충돌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21a)는 물론이고 (21b)가 비문법적인 것은 바로 **이미**가 나타내는 완료시점과 **먹었다**가 나타내는 과거 시점 사이에 충돌이 생기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먹었다**는 종결점을 갖지 않는 사건을 나타내는데 반해서 **이미**는 종결점 이전의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해서 (21c)가 문법적인 것은 **먹어 버렸다**는 완수동사로서 사건이 종결점을 갖는 경우이며, **이미**는 종결점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먹었다**, **먹었었다**는 행위동사인데 반해서 **먹어 버렸다**는 완수동사

라 할 수 있다.

넷째, 완수동사와 행위동사의 함의 관계는 서로 상이하다. Dowty (1979: 57)에 의하면 진행시제에 있어서 행위동사와 완수동사의 함의가 서로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 (22) a. If  $\Phi$  is an activity verb, then x is (now)  $\Phi$ ing entails that x has  $\Phi$ ed.  
 b. If  $\Phi$  is an accomplishment verb, then x is (now)  $\Phi$ ing entails that x has not  $\Phi$ ed.

(22)의 함의 관계로부터 **먹었다**와 **먹어 버렸다**의 함의가 서로 상이함을 볼 수 있다.

- (23) a. 철수는 밥을 먹는 중이었다.  
 => 철수는 밥을 (얼마만큼) 먹었다.  
 b. 철수는 밥을 먹어 버리는 중이었다.  
 => 철수는 밥을 (아직) 먹어 버리지 않았다.

**먹었다**의 진행형을 **먹는 중이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면, (23a)는 **철수가 밥을 먹었다**의 진행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23a)는 **철수는 밥을 (얼마만큼) 먹었다**를 함의한다. 그런데 반해서 **먹어 버렸다**의 진행표현인 (23b)는 **먹어 버리지 않았다**를 함의한다. 예컨대 **철수가 밥을 먹는 중이다**에서는 철수가 밥을 먹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밥을 먹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먹는 중이다**는 (얼마간)의 **밥을 먹었다**를 함의하지만, **먹어 버리는 중이었다**의 경우는 **먹어 버렸음**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물건을 던지는 중의 상태는 이미 물건이 던져진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던져 버린 것이 완료된 상태라면 던져 버리는 중의 상태는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이렇듯 함의 관계에 있어서도 **먹었다**는 행위동사로 간주할 수 있고, **먹어 버리다**는 완수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어 단순동사와 사슬동사가 갖는 상적 차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국어 동사를 상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24) 국어 동사의 상적분류

상태	행위	완수	성취
알다	밥을 먹다	밥 한그릇을 먹었다	깨닫다
가지다	먹어버렸다	먹어 버렸다.	찾다
있다.	길을 걸었다	10리를 걸었다	읽다
	말했다	원을 그렸다	보았다
	지웠다	그려 버렸다	
	책을 읽다	시를 썼다/읽다	

(24)의 동사의 상적 분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국어 단순동사의 상적 분류는 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며, 사술동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V<sub>1</sub>동사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5) a. [비한정 수량명사구 + 동사 + {았}] : 행위동사
- b. [한정 수량명사구 + 동사 + {았}] : 완수동사
- c. [소비동사 + 버리다 + {았}] : [없앰 + 행위동사]
- d. [창조동사 + 버리다 + {았}] : 완수동사

#### 4. 사건구조 의미론

동사의 의미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몇 개의 사건이 결합된 경우도 있다. 또한 하나의 사건은 시작이나 중간 또는 끝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또한 그 사건은 완료되거나 완료되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의 의미는 대단히 다양하다. 예컨대 **걷다**라는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하나의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왼쪽 발을 먼저 들어 올리고 왼쪽 발을 내려 놓는 순간 오른쪽 발이 올라가는 행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걷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발을 들어 올리는 사건과 내려가는 사건 그리고 또 다른 발이 올라가는 사건과 내려가는 사건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사건의 집합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의미를 해체분석(decomposition)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사건으로 기술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가 아원자 의미론(subatomic semantics)이며 아원자 의미론을 도입할 경우 동사가 갖는 상적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 4.1. 단순사건 구조와 복합사건 구조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사건이 발단에서 경계점에 이르는 시구간 동안 새로운 사건으로 변모한다면 복합사건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26) a. 사과를 먹었다.

b.  $\exists x, e[\text{Apple}(x) \wedge \text{Eating}(e) \wedge \text{Theme}(e, x)]$

(26a)에서 **먹다**라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단순사건 구조로 본다면, 어떤 사과를 먹었다는 단순한 사건으로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먹었다가 나타내는 의미는 먹기 시작한 사건으로부터 사과를 먹어 버리고 사과가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사건으로 변화하는 상으로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Yoshikawa(2003)에서는 Dowty(1979)가 제시한 동사의 상적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서 단순사건 구조적 기술을 복합사건 구조로 확대하고 있다.

(27) a. John ate an apple

b.  $\exists x, e, t[\text{Apple}(x) \ \& \ \text{Eating}(e) \ \& \ \text{Agent}(e, j) \ \& \ \text{Theme}(e, x) \ \& \ \text{Cul}(e, t)]$

(27a)의 의미는 (27b)와 같이 기술할 경우 문제점이 노정됨을 제시하고 있다. 즉 John이 사과를 먹었다면 그 사과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27b)가 참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exists x[\text{Apple}(x)]$ 가 참이어야 하며,  $\exists x[\text{Apple}(x)]$ 가 참이라는 것은 곧 사과는 존재하는 경우에만 (27b)는 참이 된다. 이렇듯 (27a)가 나타내는 의미는 John이 사과를 먹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과가 존재한다는 모순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복합사건 구조 기술이다.

복합사건 구조는 발단사건과 종료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사건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 (28) a. John ate an apple.  
 b.  $\exists e[\text{Eating}(e) \ \& \ \text{Agent}(e, j) \ \& \ \exists e',x[[\text{BECOME}(\sim\text{Apple}(e')) \ \& \ \text{Theme}(e',x)] \ \& \ \text{CAUSE}(e, e')]]$

(28b)에서 보는 것처럼 *ate*의 의미는 발단 사건 즉 먹는 사건을 나타내는  $\exists e[\text{Eating}(e)]$ 라는 사건과 종료된 결과를 나타내는 사건 즉 사과가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사건  $\exists e'[[\text{BECOME}(\sim\text{Apple}(e'))]$ 로 해체분석 할 수 있다.

의미상으로도 *ate an apple*의 의미는 (34)에서 기술한 것처럼 사과라는 개체가 먹는 사건을 거치면 그 개체는 이미 사과가 아닌 개체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9) a. ate an apple  
 b.  $x$  is an apple - BECOME  $\rightarrow$   $x$  is not an apple.  
 c.  $\exists x,[[\text{BECOME}(\neg\text{Apple}(x))]$   
 d.  $\exists x, e'[[\text{BECOME}(\sim\text{Apple}(e) \ \& \ \text{Theme}(e',x))]$

즉 (29a)의 *ate an apple*의 의미를 다시 쓰면 (29b)나 (29c) 그리고 (29d)와 같이 풀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 4.2. 단순동사 상적 의미

행위동사가 갖는 일반적 특성은 발단된 사건이 경계점을 갖지 않고 시구간 동안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행위동사/과정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단이나 경계점을 갖지 않는 상태동사나 발단과 경계점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취동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완수 동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단사건과 종결사건을 서로 다른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발단사건이 종결사건에 이른 시구간의 변화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완수동사의 상적 의미는 복합사건 구조에 의하여 기술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동사의 상적 분류는 동사 자체적 특성보다는 이들 동사와 공기하는 요소에 따라 상적 의미도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제 3절에서 보았던 동사의 상적 특성에 따라 단순동사의 경우도 행위동사와 완수동사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와 사슬동사 가운데도 완수동사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를 보았다.

- (30) a. 철수가 밥을 먹었다.  
 b.  $\exists x, e, t$ [ $\text{밥}(x) \ \& \ \text{먹다}(e) \ \& \ \text{행위자}(e, \text{철수}) \ \& \ \text{주제}(e, x) \ \& \ \text{Cul}(e, t)$ ]
- (31) a. 철수가 밥 한 그릇을 먹었다.  
 b.  $\exists e$ [ $\text{먹다}(e) \ \& \ \text{행위자}(e, \text{철수}) \ \& \ \exists e', x$ [[ $\text{BECOME}(\sim\text{밥}(e')) \ \& \ \text{주제}(e', x)$ ]  $\& \ \text{CAUSE}(e, e')$ ]]

(30)의 의미는 철수가 밥을 먹은 사건은 과거의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즉 PAST(철수가 밥을 먹다)라는 의미뿐이다. 그러므로 (30a)의 의미는 (30b)와 같이 하나의 사건 즉  $\exists x, e, t$ [ $\text{Eating}(e) \ \& \ \text{Cul}(e, t)$ ]만을 나타낸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동일한 동사라 할지라도 이들이 취하는 논항이 수량 명사구인 경우 완료상을 나타내는 완수동사임을 보았다. 즉 (31a)의 의미는 철수가 한 그릇의 밥을 먹음으로써 현재에는 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렇듯 완수동사의 경우는 (31b)에서 보는 것처럼 발단사건( $\exists e$ )과 종료사건( $\exists e'$ )으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동사가 취하는 논항이 수량명사구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이들 명사구의 의미적 특성상 한정적 수량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행위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 (32) a. 적기가 떴다.  
 b.  $\exists x, e, t$ [ $\text{적기}(x) \ \& \ \text{뜨다}(e) \ \& \ \text{주제}(e, x) \ \& \ \text{Cul}(e, t)$ ]
- (33) a. 비행기가 떴다.  
 b.  $\exists e$ [ $\text{뜨다}(e) \ \& \ \text{주제}(e, \text{비행기}) \ \& \ \exists s, x$ [[ $\text{떠-있다}(\text{비행기}(x)) \ \& \ \text{주제}(e', x)$ ]  $\& \ \text{CAUSE}(e, s)$ ]]

즉 (32)와 (33)의 비교를 통해서도 논항에 따라 (31a)는 어떤 물체(적기)의 출현이 과거 사실임을 의미하는 데 반해서 (33a)는 어떤 물체(비행기)가 부상하여 현재 부상된 상태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32a)의 떴다는 행위동사라 할 수 있고, (33a)의 떴다는 완수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 4.3. 사슬동사의 상적의미

사슬동사 가운데 이른바 복합동사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와 완수동사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즉 **먹어 버렸다**를 소비동사로 간주하여 **먹어 없었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와 창조동사로 간주하여 **먹는 일이 완수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았다.

- (34) a. 철수가 밥을 먹어 버렸다.  
 b.  $\exists e[\text{먹다}(e) \ \& \ \text{행위자}(e, \text{철수}) \ \& \ \text{주제}(e, \text{밥}) \ \& \ \exists s, x[[\text{BECOME}(\sim\text{밥}(x) \ \& \ \text{주제}(s, x)) \ \& \ \text{CAUSE}(e, s)]]$   
 c.  $\exists e[\text{먹다}(e) \ \& \ \text{행위자}(e, \text{철수}) \ \& \ \exists e', x[[\text{먹히다}(\sim\text{밥}(x) \ \& \ \text{주제}(e', x)) \ \& \ \text{CAUSE}(e, e')]]$

(34a)의 의미를 (34b)와 같이 기술하는 경우, 밥을 먹은 결과 현재 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이다. 그런데 반해서 (34c)의 의미는 밥을 먹는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밥이 먹혀져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먹어 버리다**가 한정 수량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 완료의 의미가 더욱 분명히 드러남을 볼 수 있다.

- (35) a. 철수가 밥 한 그릇을 먹어 버렸다.  
 b.  $\exists e[\text{먹다}(e) \ \& \ \text{행위자}(e, \text{철수}) \ \& \ \exists e', x[[\text{먹히다}(\sim\text{밥}(x) \ \& \ \text{주제}(e', x)) \ \& \ \text{CAUSE}(e, e')]]$

##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Vendler(1967)에서 제시한 동사의 상적분류에 따라 국어의 단순동사와 사슬동사를 중심으로 이들 동사를 상태동사, 행위동사, 완수동사, 그리고 성취동사로 하위 범주화하고, 행위동사와 완수동사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국어의 상과 시제에 대한 논의의 문제는 시제와 상표시 요소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형태소 {았}과 함께 쓰이는 단순동사가 비한정적 의미를 갖는 논항을 취하는 경우 이들 동사는

행위동사로 분류하고, 한정적 의미를 갖는 논항을 취하는 경우 완수동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사슬동사의 경우  $V_1$ 이 소비동사나 감소동사인 경우  $V_2$ 는 행위동사로 간주되는 데 반해서  $V_1$ 인 창조동사나 증가 동사인 경우  $V_2$ 는 완수동사로 구분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사의 수식관계, 함의 관계 등에 의해서도 국어의 행위동사와 완수동사를 분류하였다. 나아가서 이들 행위동사와 완수동사가 갖는 의미를 수정된 아원자 의미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이들 동사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기술하였다.

### 참고문헌

- 김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 서울 탐출판사
- 김차균. (1980). 국어 시제의 기본 의미. <지현영선생 교회 기념논총>
- 남기심. (1978). 국어 문법의 상과 시제. <한국학보> 12.
- 남기심/고영근 (1985).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탐출판사.
- 박선자. (1983). 한국어 어찌말 연구, 부산대박사학위논문)
- 서경수. (1996). 「국어 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신현숙.(1986). 의미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신문화사
- 옥태권.(1988). 국어 상조동사의 의미연구(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용. (1998). 「상황과 정보」, 대학사, 서울
- 이영현. (1996). 한국어 사슬동사의 몇가지 특성, 언어 21-4, 한국언어학회
- 이영현. (2004). 사슬동사의 하위범주와 아원자적 의미기술. 언어과학. 12(1).
- 최현배. (1984). 「우리말본」, 정음사, 서울
- Bach, E. (1986). The algebra of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5-16.
- Davidson, D. (1967).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Rescher, N.(ed)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Pittsburgh.
- Dowty, 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 Deidel Publishing Co. Boston.
- Jong-Bok, Kim and Yang Yaehyung, (2003). Parsing Complex Predicate Constructions in the Korean LKB. 한국언어정보학회발표 논문
- Kearns, K. (2000). *Semantics*, Macmillan Press, London Parsons, T.

- (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The MIT Press, Cambridge.
- Pustejovsky, J. ed. (1993). *Semantics and the Lexic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London.
- Quirk, R., Greenbaum, S., Leech, L.,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ebba, M, (1987). *The Syntax of Serial Verbs*,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Sells, Peter, (2004), Words versus Phrase in Syntactic Theory, 대한언어학회 여름연구회 발표. 조선대학교.
- Sookhee, Lee. (1992). The syntax and semantics of serial verb construction,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Washington, Hankuk Publisher.
- Tenny, C. and J. Pustejovsky, ed. (2000),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CSLI Publications, Standford.
- Van Voorst, J., (1988). *Event Structure*, John Benjamin Publishing, Amsterdam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NY.
- Yoshikawa, H. (2003). A Semantic Analysis of Accomplishments of the basis of Event Semantics, in *English Linguistics, Journal of the English Linguistic Society of Japan*, Kaitakusha Publishing co. Tokyo.

이영현

501-759 광주시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과  
전화: (062) 230-6933  
이메일: younglee@chosun.ac.kr

Received: 3 May, 2005  
Revised: 25 Aug, 2005  
Accepted: 14 Sept, 2005